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자인품(慈仁品) ②

垂拱無爲 수공무위
不害衆生 불해중생
無所冀懼 무소요노
是應修行 시용법행

애써 일을 지으려하지 않고
중생을 해치지 않으며
번뇌에 시달리지 않으면
이것도 범행에 알맞느니라

常以慈哀 상이자에
淨如佛教 정여불교
知足知止 지족지지
是度生死 시도생사

항상 자비롭고 가엾은 마음에
칭정하기가 부처님 가르침 같고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알면
이것은 생사를 건너는 것이다(그는
생사를 벗어난라)

少欲好學 소욕호학
不惑於利 불혹어리
仁而不忍 인이불범
世上所稱 세상소칭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알면 생사넘고
자비심내면 저도 이롭고 세상도 견져”

욕심이 적고 배움을 좋아하고
세속 이익에 미혹되지 않고
어질어서 남의 것 범하지 않으면
세상이 이를 칭찬하리라

仁壽無怨 인수무범
不興變快 불흥변안
人爲淨護 인위정호
慈以默安 헤이묵안

어질게 사는 이는 범하지 않고
변란이나 원망을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이 어지럽게 다투더라도
지혜로운 묵묵히 편안하리라

普愛賢友 보우현우
哀加衆生 애가중생
常行慈心 상행자심
所適者安 소적자안

어진 벗을 두루 걱정해주고
중생들을 돌보아 가없이 여기며
항상 인자한 마음으로 행하면
어디까지나 편안하리라

仁備不邪 인유불사
安止無憂 안지무우
上天衛之 상천위지
智者樂慈 지자락자

어진 선비는 사되지 않아서
편안한 마음자리 근심이 없고
하늘에서 보위해주나니
지혜로운 이 인자함을 즐긴다

晝夜念慈 주야념자
心無憂戔 심무극범
不害衆生 불해중생
是行無仇 시행무구

밤낮으로 자비를 생각하고
마음에 짊어 이기려는 생각 없어
중생을 해치지 않으면
그런 행에는 원수가 없으리라

不慈則殺 불자즉살
違戒言妄 위계언망
過不與他 과불여타
不觀衆生 불관중생

인자하지 않으면 살생을 하게되고
계율을 어겨 거짓말을 하고
남과 더불어 지내지 않으며
중생을 살피지 않는다

酒致失志 주치실지
爲放逸行 위방일행

後難惡道 후타악도
無誠不眞 무성부진

술은 바른 뜻을 잃게 만들어
방일한 행동을 하게하며
나중엔 악도에 떨어지게하니
정성됨도 없고 참됨도 아니니라

履仁行慈 이인행자
博愛濟衆 박애제중
有十一譽 유십일예
福常隨身 복상수신

어진 길을 가고 자비를 행하고
중생을 널리 사랑해 제도하면
열한가지 기쁨이 있으니
복덕은 항상 그의 몸을 따르리라

臥安覺安 외안각안
不見惡夢 불견악몽
天護人愛 천호인애
不毒不兵 불독불병

누워서도 편안하고 깨어서도 편안하고

잘때는 나쁜 꿈을 꾸지 않으며
하늘이 보호하고 사람들이 사랑하니
독약도 흥기도 안 받느니라

龍眼

문성스님 (관음정사 조실)

“100년 살았지만 입적하는 순간까지
‘보현행원품’ 사경하고 독송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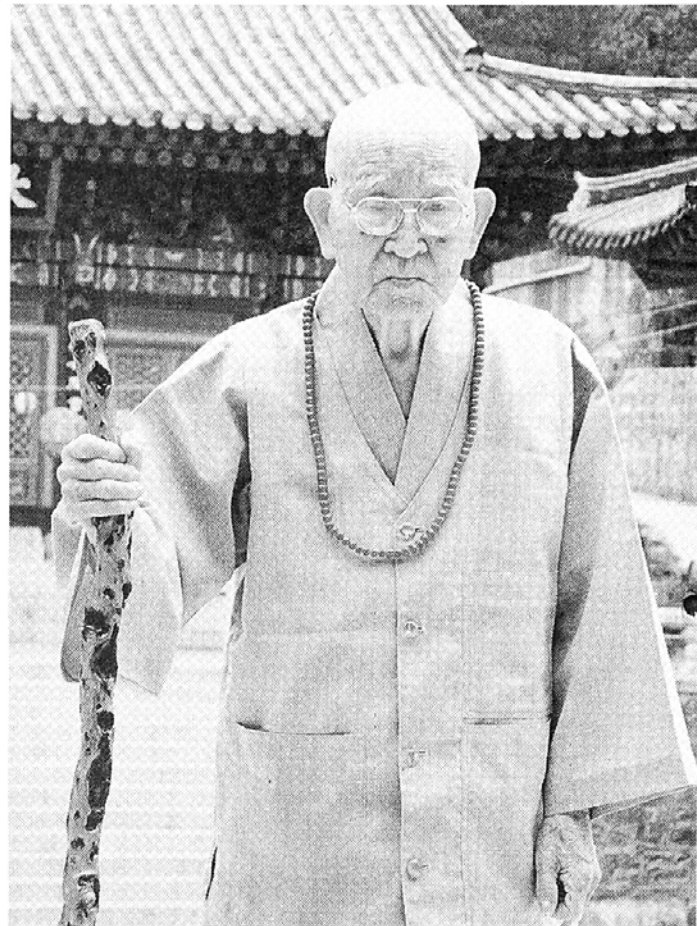
지난 4월 100세를 채우니 내가 살아온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
러나 나는 한마디로 할 말이 없습디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것을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고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보 보면 한 것도 없이 이르러 나
이만 먹었습니다, 허허...

일년중 가장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은
사중이 가장 바쁘고 고된줄도 모르고들
일합니다. 그리고 절 경내에는 물론이고 대
로변에 죽 늘어선 연등에서 세상사람들
이 부처님께서 오신 것을 느낀다고 합니
다. 내가 1910년에 출가했으니 사월초과
일을 절에서만 87번째 맞이하는 셈입니
다. 세상 살림살이가 나이지면서 불혹 연
등 수량이 늘어나 보기가 좋습니다. 또한
연등을 들고 행진도 합니다. 옛날에는 부
처님오신날이 되면 대밭에서 큰 대나무
를 베어다가 마당에 세워놓고 연등을 매
달거나 개인의 집 앞에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연등을 달 때는 나무터도 어떤
법칙으로 단다 어떻게 하는 생각 없이
그저 스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따라 하
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성을 기울이더
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에
등을 단다고 해서 무조건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등을 다는 것은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과 같은 환한 마음 밝은 마음을
밝히려는 것이지요. 부처님을 본받아 우
리 중생도 부처가 되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서원입니다. 그러한 마음
의 등불이어야 참다운 연등공양이 될 수
있겠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
실때 인도에서 가난한 노파의 등불만이
하루 이를 몇날이 다 가도록 꺼지지 않
고 세상을 밝힌 것도 다 탐욕과 어리석
음과 분심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부처님
오심을 심축하면서 부처님과 같이 마음
을 밝히는 한보짜리 연등을 밝힌 공덕입
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빈자의 일등’을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마음은 다르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2500여년이 훨씬
더 넘는 동안 익히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부처되는 법
을 알려달라고 하고 싶을 것입니다. 방법
을 알려드리기 전에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나를 보세요. 실
천을 했으면 내가 먼저 부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방법은 수많은
경전과 법어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문
제는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팔만사천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성불
에 이르는 길이 팔만사천 가지로 제시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세속에 사
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방법을 든다
면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
처가 되기 위해서 거창한 모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남을 속이
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가지를 제대로

- 1897년 경주 생
- 1910년 체서옹스님을 은사로
비구계 수지
- 통도사 보통학교, 해인사 지방학
림, 휘문고보, 해화전문학교 졸업
- 통도사 만세운동 친일주지 축출
에 앞장서다 4개월간 옥고
- 불교정화운동 참여
- 조계종 김철원장 내치례 역임
- 現 부산 해운대 관음정사에 주석



“생각 내지 않고 살기 쉽지 않지만
그것이 수행입니다
분별심 내지말고 생활 하세요”

하는 사람은 백명을 모아 놓아도 한 두
사람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일상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가는 이는 드뭅
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믿음이 바탕이 되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도 “믿
음이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
자 여래의 지혜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심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성심성의를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
서 나는 입적하는 순간까지 <보현행원품
>을 사경하고 독송할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인 서옹스님께서 “출가자의 수행
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보현행자의 모습
이어야 한다”고 늘 알려주셨기 때문이거
도 합니다.
신심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해 간다
면 어떤 것을 낱알이 묻지 않더라도 자
신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이것저것 자꾸 묻고
답을 들으려고 하지만 스님들이 다 답해
주시는 불가능합니다. 스님들이 생활하
시는 모습을 본받고 그대로 따르십시오.
스님들도 부처가 되기 전에는 함께 수행
하는 수행자이시니까요.
절에서만 지낸 내 인생 87년을 돌아보

면 실로 귀한 인연입니다. 그토록 만나기
어렵다는 불법을 만나 남들 한 생애 보
다도 긴 날들을 보냈으니까요.

나는 원래 경주 노서동에서 태어났는
데 갑자기 가세가 기울면서 속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 아버님 손에 이끌려 절에
들어와 살게 되었지요. 삼형제였지만 각
자 생각하는 것이 달라 나만 절에 왔습
니다. 그렇게 입산해서 통도사 대강백이
시던 체서옹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받
고 지금껏 중노릇하고 있습니다. 고된 속
가생활 만큼이나 절에 와서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기억마저 흐릿합니다만 어
린 마음에도 죽음을 생각했을 정도로 어
려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긴
것은 철들고 부터입니다. 지나온 일들은
다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
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고(苦)라는 것입
니다. 각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가
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이는 가난해서 또
어떤 이는 병들어서 또 어떤 이는 일이
뚝뚝 안되어서 다들 저마다 각기 다른
고통들을 당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

생활속의 불교 (122)

부처님의 뱃속을 들여다보고 싶으면

행 함이 없는 공부, 실천이 따르지 않
는 공부는 생명없는 지식을 쌓는 데
불과하다. 백번 듣고 백 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하니 참된 지혜란 실천
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가령 율행이 개구리에게 흙 냄세에 대
해 물었을 때 개구리가 수천마디의 말로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율행이 개
구리가 되어 물에 올라가 보는 경우만은
못한 것이다.

부 처님 법이 아무리 어머니마하고 광
대 무변하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다.
열 번 아니라 백 번을 보더라도 내가 직접
집어 먹음 줄 모른다면 본 것이 본 게
아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의 몸으로 마음으
로 하는 체험을 하찮게 여기고 어디 다른
곳에서 불법을 찾겠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
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 법은 결
코 정법이 아니라고 하였고 그런 법이라면
가르쳐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남 의 목장에서 풀 뜯고 있는 소를 하
루 종일 바라다보며 그 수를 헤아
린다해도 그 중 단 한마리 나마 나의 소가
되질 않는다.
남의 돈을 하루 종일 세어보더라도 그
중에 내 돈은 한 푼도 없다.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보물 창고를 들여
다 본들 한푼어치나 가질 수 있겠는가.

팔 만대장경을 달달 외워서 가로 세로
로 꿰고 그 구절들을 적적 인용할
줄 알며 그 멋진 비유와 사구계를 남김없
이 기거한다고 해도 그 중 단 하나의 사
구계를 내 것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사람
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다.
가령 목이 마를 때에 어디서 나는 어떤
샘물이 몸에 좋고 어떤 물은 해롭다는 걸
날날이 아는 것만으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 보다는 물 한 사발 시원하게
들어킬 수 있는 사람의 처지가 한결 행복
하고 떳떳하다.

경전의 구절들은 영원한 진리를 담아놓
은 그릇이지만 그것을 앵무새처럼 되뇌이
는 사람에게는 한낱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반대로 그 구절을 접하고 그것을 가슴
에 깊이 새겨서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를 면밀히 음미하여 자신의 피
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참 제자인 것이다.
지식은 몸 떨어지고 입 떨어질 때 함께
떨어진다.

집 을 짓는데 벽돌의 종류, 기둥 대들
보 시꺼래 등 온갖 재료의 종류와
규격을 줄줄 외우면서도 막상 제 손으로
집을 지을 줄은 모르다면 그는 유능한 목
수도 건축가도 될 수 없다. 그는 다만 말
많은 혼수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럴 경우 그의 많은 지식은 어떤 사용
에 어울리겠는가.
불법은 행하라고 있는 법이지 외우라고
있는 법이 아니다.

부 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에 진실로
감동한다면 그냥 감동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그 분이 하신대로 따라 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가지라도
역대 조사스님들이 초개같이 몸을 던져

참구한 그 삶이 숭고하게 여겨진다면 그
분들을 사표로 삼아 자신의 수행을 점검해
야 한다. 하루에 한번씩 만이라도.
그러나 우리 주변엔 부처님을 숭배한 나
머지 불철주야로 매달리면서 가피를 바라
는 사람들이 많다. 또 우리 주변엔 역대조
사를 흠모한 나머지 그분들의 행장을 자
랑스럽게 되뇌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 곁에 지금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이
현현(顯現)하신다면 참으로 기쁘다고 칭
찬해 주실까. 아니다. 오히려 가르침을 더
덜했다고 경멸을 하실 것이다.

스 스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
다. 부처님과 조사님이 지금 내 눈
앞에 나타나셨다고 해도 내가 먹고 배부르
지 않으면 그분들의 배부른 도리를 알 수
없다. 내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분
들의 뱃속 속을 단 한 치라도 들여다 볼
수 없다.
스스로 행하지 않는 이라면 그분들도 건
져주지 못한다.

협찬 : 김태수 · 김성민 · 최은진